

“몸으로 말하는 ‘발레’...메소드 연기 펼치고 싶어요”



광주시립발레단 박범수 발레리노
군복무 공백기 깨고 성공적 복귀
‘DIVINE’·‘지젤’·‘호두까기’ 무대
3월 ‘Voice of spring’ 출연 예정

“DIVINE”에서 솔리스트로서 보여줬던 압도적 전율, ‘지젤’ 속 패전트의 격정, 낭만. 무한한 변신 끝에 ‘호두까기 인형’에서 호두까기 왕자 역을 맡기까지... 발레리노 박범수의 도전에는 끝이 없다. 최근 광주예술의전당 별관동에서 만난 발레리노 박범수(31). 다부진 체격과 183cm에 달하는 신장은 ‘몸의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그는 2014년 한예중예 입학 후 2020년 광주시립발레단에 입단했다. 2022년부터 군복무로 공백기가 생겼지만 이듬해 ‘호두까기 인형’으로 성공적 복귀, 여러 작품에서 주역을 맡아 얼굴을 알렸다. 박 씨는 “통상적으로 ‘호두까기 인형’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공연임에도 전역 후여서인지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컸다”고 회상했다. 당시 박경숙 예술감독, 발레마스터, 단원들이 따뜻하게 반겨줘 소위 ‘군인 티’를 벗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예술가로서 목표를 묻자 그는 “국내 최초로 마린스키 예술단에 입단한 김기민 발레리노처럼 멀티 페르소나를 보여주고 싶다”며 “작품별로 캐릭터에 온전히 몰입하는 ‘메소드 연기’를 선보일 것이다”라고 했다. 젊은 발레리노의 패기, 열정, 자신감이 느껴진다.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군복무하던 시절, 발레리노가 입대하자 신기하게 생각하신 연대장님이 ‘장기자랑’을 은근히 권유했어. 이후 체력 단련실에서 몰래 연습한 뒤 점프, 턴 등을 선보였는데 환호성이 쏟아졌죠. 물론 휴가증도 받았구요. (웃음) 사실 발레단 복귀 전에는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늘 춤의 ‘끈’을 놓지 않았습디다.” 그의 삶은 일상이나 군복무 시절 모두 발레와 떼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령 자리에 앉을 때면 무릎을 들어 올려 고관절을 누른다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흰 선만 밟으며 글리사드(미끄러지는 동작)를 하는 등 자신만의 습관이 있다. 한 번은 계단을 오르면서 턴아웃(발을 넓히는 자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술과 일상의 구분이 사라져 간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다른 장르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풍물패와 팽고리 등 타악 소리”를 언급했는데 쟁쟁한 울림이 선사하는 카타르시스가 발레의 그것과 겹쳐 보인다고 했다. 언젠가 그가 무대에 올라 발레극 ‘라 바이테르’ 중 복을 두드리며 격정적인 춤을 추는 한 장면(‘복춤’ 대목)이 펼쳐질 것 같았다.

지난 수년간 ‘파드 되(2인무)’를 누구보다 많이 소화한 그다. 파트너 발레리나와 춤출 때 “무엇보다도 여성 무용수가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배려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생각은 그의 예술관을 대변한다. 박 씨는 “5분 가량의 파드 되가 끝나면 짧게 인사한 뒤, 늘 발레리노 솔로 바리에이션이 이어진다. 만일 ‘내 것’을 하기 위해 파드되에서 힘을 아끼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셈이다”라며 “관객들 시선의 소실점은 빛을 발하는 발레리나에게 간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호흡을 맞춰 파트너가 균형 잡는데 집중하는 편이다”고 했다. 힘을 더 쓰는 발레리노 역할도 힘들지만, 리프트

(공중 동작)를 수행하는 발레리나가 다칠 위험성이 있어 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 씨의 다음 꿈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자신만의 역량을 갖춘 무용수로 성장하는 것이다. 미래를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어릴 적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전막공연을 본 뒤 지그프리트 왕자의 고고한 모습에 이끌렸다면 순수한 ‘발레 소년’의 눈빛이 오버랩됐다. 한편 박 씨는 오는 3월 ‘Voice of spring’을 시작으로 5월 정기공연 ‘DIVINE’, 6월 상무시민공원에서 ‘해설이 있는 발레’ 등에 출연할 예정이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군복무 당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근무했던 박범수 발레리노(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광주시립발레단 공연에서 다양한 역할을 넘나드는 박범수 발레리노를 최근 광주 예술의전당에서 만났다. 작년 정기공연 ‘코펠리아’ 당시 프란츠 역 컨셉샷.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머리카락으로 ‘그리운 고향집’을 삼다

김다현 명장 ‘모발로 산수화를 그리다!’ 전...광주대 호심미술관

옛말에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삼는다’라는 말이 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해 갚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의미는 깊다. 오늘날 미용실에서 버려지는 머리카락이 적지 않다. 김다현 명장(뷰티미용학 박사)은 폐기되는 모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다 그림을 그려보면 색다른 도전이 될 것 같았다. 김 명장이 ‘모발로 산수화를 그리다!’를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오는 21일까지. 광주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명장은 “머리를 만지기 때문에 늘 모발로 할 수 있는 다른 미적 작업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자연모발을 활용해 작품을 그리고, 전시를 연 것은 그 때문이다”고 했다. 미용은 미와 연계돼 있다. 머리만 손질한다는 생

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신윤복 작품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다. 황토 등을 활용한 천연염색으로 작품을 완성해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를 했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16점이 출품됐다. ‘그리운



‘세한도’



‘그리운 고향집’

고향집’은 시골의 익숙한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림에선 거친 듯 부드럽고 부드러운 듯 거친 느낌이 배어나온다. 정겨운 분위기 이면에 옛 이야기가 절로 들려올 듯하다. 김 명장은 “모발로 그린 그림은 재료가 다르고 무엇보다 버려지는 머리카락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향후 색상 등을 다변화해 이색적인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제16회 미국뉴저지주 국제뷰티 예술페스티벌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제1회 개인전을 열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왕이 된 소녀...벽화에 그려진 중앙아시아의 전설

고려인마을 초입 역사·문화 공동체성 담은 벽화 눈길

한 소녀가 여왕으로 변신해 가는 과정을 담은 벽화. 고려인마을의 중앙아시아 전설을 모티브로 한 변화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돌레길 초입, 건물 외벽을 장식한 벽화의 이미지와 형태는 사뭇 이국적이다. 중앙아시아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 사이에 두고 형형색색의 자연과 동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다. 고려인마을 이전명 목사는 “벽화는 고려인 동포들이 입국 후 광주에 정착하며 꿈꾸던 평화로운 나라를 표현한 것”이라며 “꽃과 동식물이 어우러지는 마을에서 한 소녀가 여왕이 되어 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무지와도 같은 폐허의 땅이 꽃이 만발하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메시지

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벽화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드리워져 있다. 꽃을 가꾸는 일을 좋아하는 소녀를 기특하게 생각한 여왕이 소녀에게 왕국을 맡기기로 한 것. 마침내 소녀가 여왕이 되자 꽃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한다. 공작새는 소녀 머리 위를 날며 새로 시작될 새 날의 기쁨과 소망을 알린다. 이렇듯 벽화는 단순한 작품의 의미로만 그치지 않는다. 새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고려인들의 염원과 희망이 투영돼 있다. 한편 이번 벽화는 광산구가 추진하고 고려인마을이 협력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결과물로 제작됐으며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고려인마을 돌레길 초입에 그려진 벽화. (고려인마을 제공)



연극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컨셉샷. (ACC 제공)

아빠가 초등학생이 된다면?

ACC 참여극 ‘아빠와 난 초등 1학년’...21~22일 문화정보원

“와-우리 아빠 이름이랑 똑같아. 그런데 우리 아빠보다 내가 조금 더 귀엽게 생겼어.” 예비 초등학생들이 ‘연극’을 매개로 학교생활을 미리 만나보는 작품이 펼쳐진다. 진지할 수 있는 내용을 코믹하게 풀어가고,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연극이 상연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어린이 참여극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을 오는 21~22일 문화정보원 B3(극장3)에서 펼친다.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및 4시 30분에 진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금슬이의 입학식, 자신에게 관심 없는 듯한 아빠에게 불만인 금슬이는 모처럼 입학식 참석을 약속받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상처받은 금슬이는 “아빠도 나처럼 1학년이 됐으면 좋겠다” 외치고, 삼신할매가 아빠를 초등학생으로 만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씩씩한 성격이지만 외로움이 많은 주인공 ‘금슬이’, 회사에서 인정받지만 금슬이와의 관계만큼은 늘 어려운 ‘아빠(역)’ 등이 출연한다. 또래보다 어리지만 천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다운’, 삼신할매로 변신해 아이들 성장을 돕는 ‘선생님’도 무대에 오른다. 공연 중간에는 젓가락 쓰기, 우산 접고 펴기와 같은 참여형 코너도 있다.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부산 메트로홀 등 전국에서 상연한 바 있으며 이번이 광주 대관공연. 공연 관계자는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초등학교가 어떤 곳인지 연극을 통해 알려줘 자신감을 불어넣는 작품이다”며 “입학 준비부터 교육관계, 여덟 살 아이들의 속마음까지 초등 1학년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했다. 전석 4만 원, 인터파크 티켓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모던색소폰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등 단원 30명 모집

지역 예술가들이 최근 색소폰 단일악기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음악으로 세상을 밝히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 아래, 다양한 공연과 음악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인 ‘광주 모던색소폰 오케스트라’가 그것. 이들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할 단원 30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 중이다. 소프라노(3명), 알토(13명), 테너(13명) 및 바리톤(1명)을 선발하며 전공자 및 아마추어 연주인 누구라도 지원 가능.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공연장에서 연습) 지도교수를 맡은 황태룡 호신대 교수는 “오케스트라의 단기적인 목표는 기초 앙상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첫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이다”며 “3년여 뒤에는 전문 연주단체로

서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대표 문화예술단체로 성장하는 장기적 플랜을 세웠다”고 했다. 이외에도 색소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음악적, 사회적으로 함께 커 나간다는 목표다. 색소폰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면서 얻게 될 메리트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건강’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색소폰 주법 특성상 깊은 복식호흡 훈련으로 폐 기능이 강화되고, 규칙적인 호흡 조절이 필수적이기에 혈액순환 등이 개선된다는 것. 그는 올바른 연주 자세를 취하면서 척추와 소근육이 발달한다는 점을 꼽으며 “많은 이들이 단원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입회비 5만 원, 월 5만 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